



| | | | | |
|---|--|---|-----------|--|
|  | 보 도 자 료 | | 수도권매립지 종료 | |
| | 배포일자 2021년 11월 4일(목) 총 3매 |  환경특별시 인천 | | |
| 담당 부서 자연재난과 | 담당자 • 자연재난담당 김형석 ☎440-3351 • 담당자 윤태웅 ☎440-3352 | | | |
|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시, 겨울철 폭설대비 교통소통대책 합동 훈련
- 11.4.(목) 14:00~15:00 영종대교 상부도로 13.5km 지점 -
(공항방향 통행 차로 전면 폐쇄)

인천시가 겨울철 폭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신공항하이웨이(주)(대표이사 전영봉)는 4일(목) 오후 2시 영종대교에서 기습적인 폭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와 대규모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시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주관해 유관기관(육군제17사단, 고속도로 순찰대, 市소방본부 서부소방서, 영종소방서, 종합건설본부, 10개 군·구를 포함한 18개 기관) 100여명과 민간단체에서는 인천시 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 참석했으며, 훈련장비로 제설차량, 119구급·구조차, 경찰차 등 총42여대를 동원했다.

영종대교 전 구간에 기습적인 폭설(20cm)로 인한 노면 압설로 인해

안전거리 미확보로 공항방향 13.5km지점 10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상자 13명 발생, 사고차량 화재발생 등으로 차량통행 불통 및 고립상황 발생으로 영종대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특히, 지난 겨울철 수도권에는 북극의 고온현상으로 인한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아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북서쪽에서 주기적으로 구름을 만들고 고기압과 저기압의 경계에 머물면서 불안정한 기압계가 지속되어 예년에 비해 대설특보가 잦았던 경험 있어 이번 훈련이 더 중요하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훈련 참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현장 훈련을 통해 소기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번 훈련으로 습득한 경험을 겨울철 기습한파와 폭설에 대비 및 민·관·군·경 협조체계에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가상 재난상황 설정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 기상 재난상황 설정

〈기상 상황〉

- ❖ 2021.11.4.(목) 14:00경 영종지역에 5cm 이상의 적설
- 14:00~14:13 사이 신적설 20cm의 기습 폭설이 발생하고, 강한 눈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음
- ※ 11.4일 오후부터 인천지방에 20cm 이상의 강설 예보

〈재난 상황〉

- ❖ 14:00~영종대교 전 구간 기습 폭설(20cm)로 긴급 제설작업 중 노면 압설로 인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공항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 13.5km 지점 10중 추돌사고 발생하여 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 사고차량 화재발생 등으로 차량통행 불통 및 고립 상황발생



※ 영종대교 현황

- 개 통 일 : 2000년11월21일, 규모 : 공항고속도로 총연장 38.2km(영종대교 4.4km)
- 주요시설 : 왕복 6~8차로, 진출입 9개소 (IC 4개소, JC 5개소)